

# “머릿속 상상력 글과 그림으로...생동감 있어 더 재밌어요”

## 2024 꿈을 쏘다 <4> 고헌경 동화작가

“상상력을 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더 리얼한 면이 있죠.”

고현경 동화작가는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글과 그림 작업을 한꺼번에 하니 그만큼 이점이 있다. 머릿속의 상상을 글로 풀어내고, 그림으로도 표현하므로 글과 그림 사이의 간극이 없다.

충남 당진 출신인 그는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의 고향인 광주에 정착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살다가 광주에 내려온 지 올해로 6년째다. 흥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남편 김진남도 현재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고등학교 때 꿈이 방송사 PD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다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 쪽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동 관련 출판사에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접하면서 ‘나도 동화를 쓰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떻게 해서 동화작가의 길로 들어섰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다. 차분하면서도 조곤조곤하게 그는 동화작가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고 작가는 “3년간 다닌 출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며 “그렇게 두 번째로 들어간 대학이 흥익대 회화과였다”고 했다.

출판사 근무하다 흥익대 미대 진학 당진 출신...결혼 후 광주서 창작활동 한국가사문학공모전 동화 우수상 장편 ‘킹왕, 짱’ 하반기 출간 예정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림에만 몰두했다. “개인전, 단체전을 하며 화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여자로서의 일상일대의 전환점과 마주하게 됐다. 그림에 대한 열망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해야 했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레 책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동화작가에 대한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동화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앞뒤 재지 않고 그림책을 발간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책 발간을 계기로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요. 미대에서 회화를 공부한 덕분에 그림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글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인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현경 동화작가

그 무렵 동화작가 안수자와 윤미경과 인연이 닿았다. 두 작가와의 만남을 계기로 동화작가들이 함께 공부하고 창작을 하는 모임인 이성자문예창작연구회 창립에 들어가게 된다.

고 작가는 “처음에는 선생님께 야단도 맞고 다른



분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다”며 “창피하고 뻔뻔해서 혼났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제자’가 아닌 함께하는 ‘도반’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성자 교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직도 글이라는 미로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며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누구에게나 거쳐야 할 수련의 시기를 그 또한 예외 없이 겪었다. 그렇게 정진한 결과 나눔문학에서 주는 그림책 신인상을 받았고 제10회 한국가사문학공모전에서 동화 우수상을 수상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흥! 짱! 뽕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었다. 두 책은 남편이 사소한 일로 매일 투닥거리며 지내지만, 그 혼한 일상과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작가가 두 남편을 키우면서 느낀 감정과 추억을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린 책으로는 ‘과자가 너무 많아’, ‘학교 도서관 미로 대탈출’, ‘꽃잎 먹는 달팽이’ 등

이 있다.

고 작가는 올해 하반기에 장편 동화 ‘킹왕, 짱’을 출간할 예정이다. 공존을 주제로 AI가 일상이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동화라고 부연했다. 글을 쓰면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동화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두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고 작가의 향후 창작이 기대되는 건 그 때문이다.

“글을 그림으로 묘사했을 때, 또는 그림을 글로 표현했을 때 생동감을 부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글만 썼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캐치해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언급한 대로 그는 충남 당진이 고향이다. “제 인생에서 광주에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인생이 뜻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고 작가가 생각하는 동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그는 한마디로 ‘재미’라고 단언한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지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스마트폰이겠죠. 무작정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동화는 스마트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화가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다고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렵지만요. 동화 작가로서 스마트폰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삶과 함께 ‘나무, 나무 비로소-당다’

어반플레이, 목공방 가구 팝업 전시 3월 31일까지 뉴스뮤지엄ACC

지난해 발간된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는 오래된 나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 캐나다 저자인 수잔 시마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다. 그는 오래된 나무는 숲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소통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한다.

비단 오래된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는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무는 사람에게 가까운 자연이자,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베푸는 존재다.

‘나무’는 ‘태어남(生)’에서 유래한 말로 자연의 이치를 포괄한다.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일상의 공간을 채우는 가구의 원재료는 나무다.

나무를 모티브로 한 목공방 가구 팝업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뉴스뮤지엄ACC에서 열리는 ‘나무, 나무 비로소-당다’가 그것(오는 3월 31일까지).

도시문화콘텐츠 전문기업 어반플레이는 건축, 회화, 토목이라는 세 이야기를 묵수 세 사람의 공간을 토대로 풀어낸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작업자의 방’ (work shop)과 마주한다. 자유로운 드로잉에서 시작돼 도면으로 옮겨지고 재단과 가공의 단계를 거친 나무조각들이 조립된다. 마지막 마



어반플레이가 오는 3월 31일까지 뉴스뮤지엄ACC서 여는 ‘나무, 나무 비로소-당다’ 전.

감이 되기까지 수많은 saw와 고인의 흔적이 오롯이 담기게 된다.

작업실은 질서정연하다. 도구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도구로 새로 태어나기까지 나무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인고의 산물은 하나같이 파스함을 선사한다. 각각의 도구에서는 확장시절 읽었던 ‘방향이 짝’은 노인의 이야기’ 한편쯤은 깃들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각각의 공간에 배치된 가구는 거실을 또는 서재

를 옮겨주는 듯한 분위기를 발한다. 잠시 앉아 가구가 전해주는 온기와 하나의 나무가 가구로 변신되기까지의 수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도 좋을 듯하다.

서인희 매니저는 “요즘에는 각각 취향을 즐기고 담아내는 것이 가치인 세상이다. 가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번 전시는 정성스럽게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왜 나무를 만났고, 왜 그 나무를 토대로 가구를 만들게 되었는지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예술로 남도로’ 운영기관 2월 15일까지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예술로 남도로’ 운영기관을 2월 1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는 도내 기초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4개소를 선정해 총 6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는 기관은 1:1 예산 매칭을 통해 도내 사·군 지자체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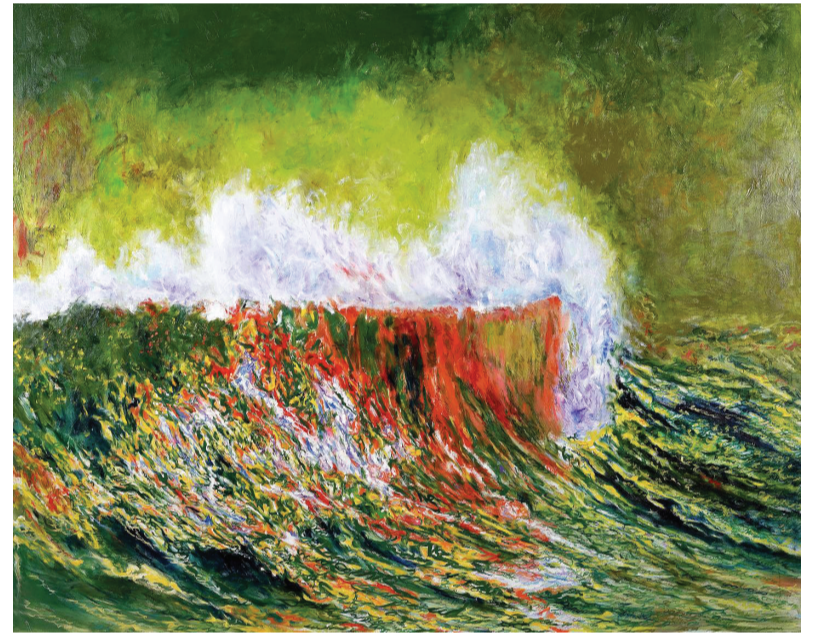
회의와 컨설팅,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네트워크 체계 형성, 기초문화재단 및 지역문화개발기관의 역할과 사업 방향성 제시 등을 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 지원을 받은 광양시는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면 행차하고 시찰하던 원님길(광양읍 남문3길 19-8 일원) 행사 재현행사를 4회 운영했다.

또 해남군은 북평면 남창마을 일원에서 해남 문화워킹그룹 발굴, 작당모의 프로젝트, 콜로키움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단 차서연 사업담당자는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 및 지역민과의 공유와 연대 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이번 공모에 많은 문화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노아의 방주’

## ‘노아의 방주’가 던지는 의미는?

김25작가 초대전, 2월 22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바다에 불길이 치솟은 모습이다. 물에서 불이 불은 모습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환기한다. 자연 재해, 이상 기후라는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양상이다. 아니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다 그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25작가의 ‘노아의 방주’전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림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언젠가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대 박물관에서 김25작가 초대전이 오는 2월 22일까지 열린다. ‘노아의 방주’전이라고 명명된 작품들은 겸허의 자세를 갖게 한다. 화려한 색채와 바다의 거친 파도는 노아시대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어땠을지 가능하게 한다. 한편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예고하는 것 같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방주 II’ 시리즈와

‘Don't look away!’ 드로잉 시리즈. 그동안 작가는 회화에 텍스트를 연계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특히 ‘모비딕’, ‘노인과 바다’ 등 문학 속 영어와 불어 테스트를 작품에 녹여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회화의 변신을 시도해왔다.

이번 ‘노아의 방주’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붉은 불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선명한 보색은 보는 이에게 두려움과 어떤 경외감을 갖게 한다.

한편 정금희 박물관장은 “김25작가의 작품에서 거대한 바다 위에 홀로 내던져진 인간의 낙약한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며 “작가의 독창적인 그림을 통해 저마다에게 주어진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사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